

첨 부

4.11 09:00부터 보도

#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말씀

## - 「핀테크 혁신 활성화」 릴레이 간담회 -

2018. 4. 11.

# 금 융 위 원 회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## I. 인사말씀

- ☐ 안녕하십니까,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.
- 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핀테크 릴레이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
- ☐ 오늘 간담회는
  - 금융과 IT 융합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여러분께 설명드리고,
  - 지난 3.20일 발표한 「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, 핀테크 혁신의 주체인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하였음

## II. 금융과 IT융합에 따른 금융서비스의 변화와 정부의 정책 방향

- 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체감하고 계시듯이, IT기술이 금융에 융합됨에 따라 금융서비스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
- ① 우선, 결제·송금 분야의 경우  
모바일 간편결제 및 저비용 송금서비스 등 편리하고 저렴한 서비스들이 많이 출시되었고,
  - \*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등 이후로 53종의 간편결제/송금서비스 신규 출시 ('17년말 기준)

- ② 보험 분야는 IoT기술,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 
인슈테크 확산으로 맞춤형 보험상품이 활성화되고 있으며,
- ③ 금융투자 분야는 클라우드 펀딩 등으로  
새로운 투자 플랫폼이 확대되어 가는 동시에,  
로보어드바이저 등 자산관리서비스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

□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

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끌 열쇠가 있다고 보고  
핀테크 활성화를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,

-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액션플랜으로서  
「핀테크 혁신 활성화방안」을 발표(3.20)하였음

□ 핀테크 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간략히 소개드리자면,

- 우선,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 
금융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하고  
핀테크산업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음
- 그리고,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 고도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 
규제 개선 및 제도적 인프라 구축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음
- 한편으로는, 간편결제, 빅데이터, AI 등  
계속 새롭게 나타나는 신기술이  
신속하게 금융서비스와 결합하도록 촉진하겠음
- 마지막으로, 기술발전에 따른 신종 사이버 위협 등  
핀테크 혁신의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

### Ⅲ. 핀테크 혁신 활성화를 위한 금융권 역할의 중요성과 당부사항

□ 핀테크 혁신에 따른 금융서비스의 변화와  
이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 
기존 금융권에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함

□ 핀테크기업들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확산은  
금융산업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 
기존 금융권의 수익기반을 흔들고 있음

\* 맥킨지: '25년 기존 소비자금융 부문 이익의 60%까지 핀테크에 의해 감소될 것으로  
전망(소비자금융> 지급결제> 자산관리> 주택담보대출 순으로 부정적 영향이 큼)

○ 모바일 간편결제·송금, P2P대출 등의 서비스는  
전통적인 은행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으며,  
로보어드바이저, 클라우드 펀딩 등도  
기존 증권사, 자산운용사의 서비스와 경쟁하고 있음

□ 하지만, 핀테크 혁신 활성화는 기존 금융권에  
두가지 측면에서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

○ 먼저,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서비스를 고도화함으로써  
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소비자 혜택도 늘릴 수 있음

- 예를 들어, 앱(App),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 
계약자의 건강관리노력을 파악하여  
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출시,  
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이 가능함

○ 또한, 핀테크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음

- 핀테크기업은 규제와 같은 제도적 장애뿐만 아니라  
금융회사와의 협력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음

\* 핀테크기업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테스트  
하고자 하는 수요를 확인한 결과 44개 서비스의 위탁수요를 파악('17.11)

\* 영국 FCA는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결과, 금융회사와의 제휴가 없는  
핀테크기업은 테스트 대상 소비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힘('17.10)

- 금융회사들은 핀테크기업의 파트너이자 투자자로서  
활동함으로써, 핀테크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 
자체 서비스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음

\* 현재 7개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을 지원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한  
핀테크 랩을 운영 중

□ 금융회사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기회를 잘 살리느냐가  
정부정책의 목표인 국민 금융생활의 편의성 제고와  
핀테크산업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,

○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

- 우선, 핀테크 기술발전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 
이를 기존 금융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 
다각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람

- 또한, 핀테크기업과 한편에서 경쟁하면서도  
서로 협력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 
핀테크기업에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람

#### IV. 마무리 말씀

- 정부는 한나라 유방이 수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초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군책군력(群策群力)의 정신으로 핀테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며,
  - 핀테크 혁신의 주체인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선의의 경쟁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
  - 오늘 모인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기탄없이 개진해주시길 바람
- 아울러, 금융위원회는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자 핀테크최고책임자인 CFO(Chief Fintech Officer)로 송준상 상임위원을 지정하고자 함
  - CFO는 금융분야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의 영향을 금융정책 수립·운영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
  - 영국, 싱가포르 등 핀테크 선도국과 신남방 정책에 따른 협력 대상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핀테크 협력을 총괄할 계획임
- 정부의 「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」은 완결판이 아니라 계속 보완·발전되어야 하는 상시계획(rolling plan)임
  - 앞으로 CFO의 총괄하에 빠르게 변화하는 핀테크기술을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정책이 핀테크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림

- 정부는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의 창의적인 의견을  
CFO를 통해 지속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니  
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 주시기 바랍니다
-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